

# 2007년 동절기 AI 특별방역대책 평가

— 농가의 차단방역 활동에 감사 —



김 준 길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주무관

**최** 근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라는 신조어가 신문지면에서 빠지는 날이 없고, 국제곡물가 인상, 사료값 인상, 한미 FTA의 국회 비준 논의와 같은 축산농가의 힘을 빠지게 하는 소식만 있어 축산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겨울 AI 특별방역활동을 통해 AI를 성공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겨울철새가 AI를 옮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범으로 지목하고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간 특별방역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다. 그동안 축산농가에서는 나름대로 차단방역에 충실히 임해

주었고 양계협회를 비롯한 생산자단체들도 ‘농장내 발판소독조 설치 및 장화 갈아신기 운동’을 전개하며 농가들의 방역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앞장을 서 주었다.

정부 방역기관에서도 축산농가가 기본적인 차단방역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교육·홍보와 소독실태도 점검하고, 닭·오리 사육농가에서 귀찮아 할 정도로 확인전화와 추운 겨울날씨에도 철새도래지에 뛰어 들어 철새 분비물을 수집 검사하며,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일제검사도 실시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AI 특별방역기간은 지난 2월말에 완료되었다. 지난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되돌아보며 몇 가



지 되짚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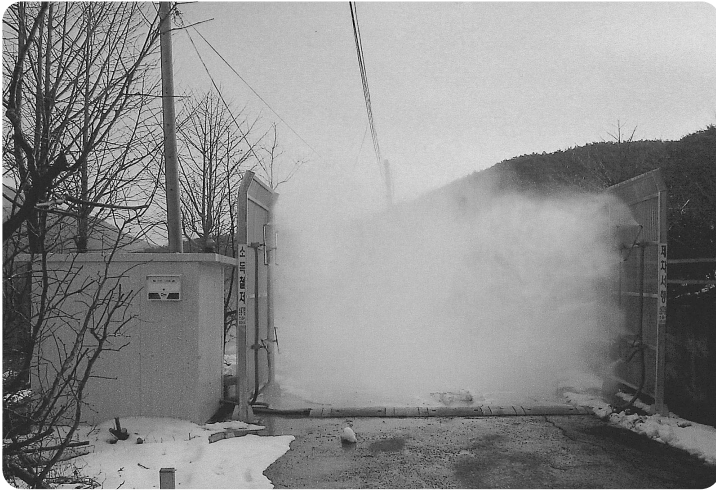
### 야생조류와의 차단에 더욱 신경 써야

앞에서 언급한 양계농가 소독실태 일제점검에서 소독설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농가가 일부 있었다.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이 문제가 아니라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주인 의식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다.

AI가 혹시나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활동이 정부 방역기관에서 가장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는 부분이다. 주로 과거 발생사례가 있었던 지역(천안 등 14개 시·군의 2,500여 농가가 해당된다)에서 사육하는 닭·오리에 대해 전화로 일일이 이상 유무를 확인하

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들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의 철새도래지의 철새 분변(72개소 5,570점)과 파주·철원·고성의 민통선 지역의 야생조류의 분변(905점), 그리고 야생조류를 직접 포획(352마리)까지 하여 AI에 감염되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였다. 특히 AI에 감염되어도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오리에 대해서도 일제검사(총 1,005농가 25,262진)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병원성 H5N1형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철새도래지나 닭·오리농장에서 총 90여점의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저병원성 AI 바이러스는 매년 검출되고 있다). 이 중에는 비록 저병원성이지만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가능성이 있는 H5나 H7형 바이러스도 철새에서 검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와 오리농장에서도 저병원성이지만 H7N8형 AI가



가금과 가금육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수입된 종오리 병아리까지 추적하여 충북·충남·전남의 8개 농가에서 사육중이던 것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지난 1월에는 공항에서 섬뜩한 일이 발생하였다. 태국발 항공편을 통해 애완조류가 밀반입될 뻔한 사례가 2차례나 적발된 것이다. 알다시피 태국은 AI가 상재화된 지역이다. AI가 국가간에 전파되는 데는 주로 철새가 매개가 되지만 애완조류의 밀수도 상당히 큰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이외에도 환경부 협조로 지하수 오염여부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되었다. 지난 2006년말에 AI가 발생했을 당시에 살처분한 가축을 매몰한 지역에 대해 환경부에서 지하수 오염여부를 계속 조사해 왔는데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다행히 가금류의 매몰로 인한 수질



확인되어 고병원성으로 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사육 오리에 대한 살처분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였다.

### 국경검역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특별방역대책 기간중인 지난해 11월에 영국에서 AI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주로 종오리로 키울 병아리를 영국에서 수입해 왔는데 농림수산식품부는 영국산

오염 사례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

최근에 동남아시아 뿐 만 아니라 인도·방글라데시와 같이 인구가 밀집하고 방역의식이 부족하여 정부의 방역조치에 비협조적인 지역에서 AI가 계속 발생하면서 확산이 되고 있어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 정부에서도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면서 얻은 경험으로 대응체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지만 AI 뿐만 아니라 여타 가금전염병 방역에 농가의 주인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양계**